

다산 주변인물 소설적 구성으로 엮어



다산의 사랑
정찬주 지음
불이필 펴냄
1만3천원

올해는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탄생한지 250주년이 된 해이다.

유네스코 지정 올해의 기념 인물로 루소, 헤르만 헤세 등과 함께 다산이 오르면서 "정약용은 매우 중요한 한국 철학자로 그의 업적과 사상은 한국 사회와 농업, 정치 구조의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을 얻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산학 연구자들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다산학 학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그의 유배 생활과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정약용의 '사랑'을 그린 정찬주 장편소설 <다산의 사랑>은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그렇다고 단순한 한 인간의 사랑 얘기가 아니다. 정약용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하나의 '연구'다. 정약용의 주변 인물들, 홍익 모녀나 응중제자와 초당제자, 홍씨 부인 등이 다산과 어떤 인간관계였는지 작가 특유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소설을 이끌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소설적 상상 요소를 더욱 가미해 인간 정약용의 삶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다.

18년의 유배생활. 그 기간에는 다산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다. 유배지를 찾아오며 다산을 모신 초당의 제자들은 학문의 의지를 품고 다산에게 시를 지어 올리며 출세를 꿈꾼다. 다산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각자 다른 길을 안내한다. 제자들은 서로를 시샘하기도 하고 속세를 떠나 승려들과 마음 편히 어울려 있는 삶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한다. 주막에 모여 다산을 둘러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은 인간 다산의 면모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깊은 교유를 나눈 혜장 스님과 훗날 조선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사로 성장하는 젊은 승려 조의. 그들은 다산의 외로움과 고독을 위무한다. 봄나들이를 떠나는 중 우연히 혜장을 만난 다산은 주막에 앉아 주고받은 몇 마디 말에서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느낀다. 혜장 역시 비범함을 알아보는 마찬가지로. 혜장은 다산을 백련사로 데려와 차를 대접하며 밤새 이야기를 나눈다. 차, 속세, 유배, 스승연담 등 둘의 이야기는 밤새 끝도 없는 공중전으로 이어진다. 이십 대 중반의 풋풋한 승려 조의는 혜장의 소개로 다산을 만난다. 조의의 첫인상은 "몸가짐이 진중했다. 말투가 느리고 행동이 굽뜨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다산이 가르친 제자들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었다. "제법 번득이는" 초의 승려의 시를 알아본 다산은 조의에게 시를 가르쳤고 학문에 대한 의욕이 식지 않기를 바랐다. 초의 역시 다산의 가르침을 얻은 제자가 된다.



다산 정약용 영정

다산... 혜장, 초의선사와 교본

다산의 인간적 고뇌, 슬픔 묘사

이런 다산에게는 적적함을 채워준 여인이 있었다. 제자 이청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며칠 머문 학림마을의 '남당네'였다. 남편이 죽고 친정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따라 술정 일을 돌던 미모의 그녀는 정약용의 눈에 들었다. '남당네'는 어린 나이로 예는 아직 몰랐으나 그 모습이 참하였고, 딱한 사정마저 다산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산과 '남당네' 사이에서 딸 '홍임'이 태어났다. 홍임이는 다산의 눈을 쏙 빼달았다. 게다가 영특하기까지 하여 다산이 집으로 들

어갈 때 데려가 공부할 꼭 시키기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부인 홍씨는 홍임이와 홍임 모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다. 다산은 이를 안 쓰럽게 여겨 형님 집에 마련된 별채에서 둘을 머물게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남당네는 정약용에게 헌신적이었고 특히 차(茶)를 잘 끓였다. 혜장에게 배운 차 달이는 솜씨가 제법이었다. 차 종류에 따라 찻물의 온도와 따르는 양을 달리하여 "달빛이 드리운" 것 같은 차를 내놓았다.

다산의 나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떠나 갔다. 다산의 세월은 아름답기도 했으나 외로움이 늘 따라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싶지 않았던 인간 정약용의 '사랑'이 있다. 소설은 정약용이라는 인간과 주변 인물들의 굴곡진 삶을 선연하게 그리고 있다. 어떤 이는 필연적으로 다산을 찾아왔으며 다른 이들은 우연히 다산을 만났다. 또 다른 이들은 다산 곁에 오래 머물고 싶었으나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인물들의 사연은 서로 실태처럼 엮혔다가 다시 풀어지기도 하였으며, 소설은 이를 통해 가슴에 고인 슬픔을 정제 없이 흘려보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을 연구한 학문과는 다른 소설만의 강점이다.

아름다운 풍경의 강진, 그 속에 녹아든 구수한 남도 사투리. 다산이 살았던 유배지들의 묘사를 바라보면 다산의 고독과 슬픔, 더 나아가 우리들의 고뇌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다산을 연구한 수많은 학문들과 차별화된 소설은 다산의 생을 가장 선연하게 나타낸 연구이자 논문이다. 김주일 기자

사회의제 불교로 바라본 시론집

김성철 교수의 불교하는 사람은...

김성철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3500원



지난 1년 동안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부·사진)는 <불교신문>을 통해 매주 한 번씩 '실천불교'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했다. 이 글들이 불교를 신봉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지침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그렇게 총 48편의 글이 모여져 이번에 출간됐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면서 생리학, 사회철학, 뇌과학, 논리학, 윤리학, 역사, 유교, 심리학, 정책결정, 정보통신문명, 생명윤리, 종교의례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불교를 해석했다. 고정 지면의 연재물로서 분량 제한이 있었기에 각 주제에 비해 글들이 압축적이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의제들에 대해서 김성철 교수가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을 묘사해 바라본다. 김성철 교수가 쓴 불교시론집이다. 김성철 교수는 이 책에서 불교를 '읽는 불교', '하는 불교'에 대한 고민과 불교를 응용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즉 보시와 지계, 그리고

수계와 생명 윤리, 수행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많은 점들을 서로 알고 논의하고자 했다.

또한 불교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조그마한 부분부터 거대 담론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논의해야 할 것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시대의 불교의 역할,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해 불교인으로서 말하고 있다. 끝으로 지식으로서의 교학체계가 아니라 삶의 좌표로서의 연구 자세를 대담형식으로 진지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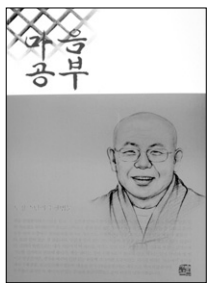
특히 필자가 각종 지면에 기고한 글들 가운데 불교의 실천과 관계있는 열다섯 편을 추려서 '불교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또한 일부 잘못된 권력자들의 종교편향에 항거하며 2008년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던 범불교대회 즈음에 기고했던 글들과 우리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글 몇 편을 '파사현담'에 실었다. 김주일 기자



도정 스님의 40년 마음공부법

마음공부

도정 스님 지음 | 마음살림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진실한 참깨달음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불자들을 위해 낸 도정스님의 수행법문이다. 최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구인사 생활원각대조 사님 문하로 출가해 40여년 수행해 온 도정스님의 치열한 수행 모습이 책 속에 녹아있다. 마음을 주제로 한 도정스님의 생활법문을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제에 접근하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시각에서 만나는 고민과 수행의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 불자들의 시

선을 잡아 준다. 고요하지만 깊은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속처럼, 자신의 고민과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인 불자들의 시각에서 만나는 고민들을 한 올 한 올 마음공부로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솔직하게 불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를 내려놓는 수행의 길을 걷는 진솔한 그 모습이 불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더욱 깊은 불교의 세계로 인도한다. 저자는 도란 끝이 없는 것이라며 수행 체험에서 우리나라는 말을 던지고 있다. 또 두텁게 쌓여 있는 어리석음과 욕심을 잠재우기가 어렵다고 쉽지 않은 고민을 고백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저자의 모습에 독자들은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음공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통을 찾고, 고통을 찾아가는 마음을 깨달으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인간성을 찾는다. 김주일 기자

계절에 맞는 사찰 숲길 24곳 소개

천년사찰 천년숲길

여태동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9천원



걷기 열풍이 거세다. 그 열풍은 다양한 길트기로 이어지고 있다. '올레길' '둘레길' 등등 이전에 없던 길들이 속속 생겼다. 걷기 열풍을 말할 때 베르나르 올리비에를 빼놓을 수 없다. 프랑스 퇴직 언론인 출신인 그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마르코 폴로가 말을 타고 갔던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1만2000km 비단길을 오로지 걸어서 건넜다. <천년사찰 천년숲길>은 20년 동안 불교 전문가로서 활동한 저자의 걷기명상 에세이집이다. 김주일 기자

취재. 또는 개인적으로 줄곧 사찰을 다니면서 걸었던 숲길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천 년 역사를 간직한 사찰과 그 숲길을 걸었을 수많은 선지식들의 수련거리의 소리를 듣고, 겹겹의 세월 속에 담긴 그 사연들을 우물에 마중물을 부어 끌어올리도록 올려 모았다.

송광사 정경다리길을 건널때 저자는 원오스님의 '조고각하'를 떠올렸다. 때론 사람의 그리움도 길 속에 묻어났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는 서울 수국사서 짧은 생을 마감한 일지 스님과의 이야기들이 저자의 뇌리를 스쳤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계절에 따라 걸을만한 사찰 숲길 24곳을 소개했다. 봄에 걷는 동백숲길과 꽃길 그리고 대숲길, 여름에는 그 푸르름이 한창인 전나무 숲길, 가을에는 울긋불긋 비단을 수놓은 듯한 단풍길과 금강송길, 겨울에 걷는 눈 쌓인 백담사 돌담길과 실상사 장승길 등이 그것들이다. 김주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이웃 종교 가르침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천성산 터널이나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의 경우 비불자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전통과 현대의 갈등, 남북통일의 문제, 바람직한 정치체제의 문제, 생명공학과 윤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아서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다' 중에서

-세속의 사회에서는 권력과 금력의 우열에 따라 사람의 서열을 매기지만 승가사회에서는 세속과 상반된 가치체제로 그 구성원의 서열이 정해진다. 가장 선량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청정하고, 지혜로운 수행자를 최정상에 모신다.

세속의 권력과 금력에 대한 복종은 겉모습뿐이다. 그러나 지계정행한 스님에 대한 우리의 공경심은 속이든 겉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결같다. 그런 삶을 사시는 모습만 보고도 세속에 지친 이들은 너무나 큰 위안을 받기 때문이다. 각박한 신자유주의의 가치관에 대해서 불교는 해독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중화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불교의 본분이다. 부처님 당시에 그랬듯이, 승가가 세속과 상반된 삶의 모습을 시현할 때 불교는 가장 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교가 흥하려면' 중에서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고운사 여름수련회** (어린이, 중·고생, 일반) www.gounsa.net

천년 소나무 향이 가득한 청정도량 고운사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나는 여름 고운사로 가자 어린이 수련회

●일 시 : 2012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참가비 : 오만원
●대 상 : 초등학생 누구나

what is the Buddha? 중·고생 영어수련회

●일 시 : 2012년 8월 3일~5일 (2박 3일)
●참가비 : 칠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여벌 옷, 운동화 및 개인용품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일반 여름 수련회

●일 시 : 1차 수련회 (8월 6일~8일)
2차 수련회 (8월 9일~11일)
3차 수련회 (8월 12일~14일)
●참가비 : 일십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개인용품

|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 참가신청 : 고운사 홈페이지, 이메일 - gounsa44@hanmail.net
| 참가문의 : 고운사 중무소 054)833-6933. 833-2324

☎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정서치유를 위한 승마훈련과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훈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41회 (21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1.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2. 승마 정서치유와 호연지기
3.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 연 제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8월 25일 (5주간)
※ 모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 회 비 : 1주 - 49만원 / 2주 - 90만원 / 3주 - 110만원 / 4주 - 13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운동복·운동화·모자·개인 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기기)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공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기
4. 정서치유 : 명상테라피,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테라피, 무용테라피, 전통음악테라피(판소리, 전통악기), 생태체험치유
5. 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연인원 4만명(외국인 템플스테이 6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화랑사관학교